

코로나 재확산 방역위기 촉발하나

23, 24일 이틀 연속 두자릿수 확진자 발생 직장·피로연發 따른 가족·지인 n차감염 확산 최근 확진자 7명 중 1명꼴 감염경로 오리무중

제주지역에서 이틀 연속 두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족·지인 모임, 피로연 등 여럿이 모이는 공간에서 n차감염이 퍼지고 있는 데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도 잇따르면서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17명(947~963번), 25일 2명(964~965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965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들어선 2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172명,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확진자는 42명으로 나타났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지난 24일 확진된 17명 중 7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948·950·954·956~958·960번)이며 2명은 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947·951번)이고, 4

명은 타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952·953·962·963번)이다.

또 지난 이틀 간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총 6명(949·958·959·961·964·965번)이 발생했다.

특히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제주시 직장 모임 및 피로연 관련 5명(948·950·954·956·960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최초 감염원인 920명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18명이 확진됐다.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입도객에 의한 확진도 잇따랐다. 947번은 일가족 2명과 함께 입도한 관광객, 951번은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또 952·953번은 전라남도 나주시를 다녀온 이력, 962번은 서울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 또 963번은 직접 서울을 방문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입도하는 과정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장소 2곳에 대한 동선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확진자는 서귀포시 동홍남로(동홍동) 소재 현대목욕탕에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귀포시 일주동로(동홍동) 소재 제주공전 음식점에서 진행된 결혼식 피로연에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다혜기자

책가방 메고 등교하나 했더니...

코로나 재확산세에 원격수업 전환 학교 늘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원격수업 전환 학교도 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13개교(유치원 4개원, 초 4개교, 중 2개교, 고 3개교)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부분·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전체 원격은 5개교(전원·동원·제주엔젤·세순유치원, 한림공고)이며, 학년별 원격은 7개교(남광초, 위미초, 오라초, 이도초, 노형중, 서귀포대신중, 중문고), 학급별 원격은 1개교(함덕고)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24일 기준 원격수업 전환 조치가 연장된 학교는 유치원 4개원을 포함해 위미초(6학년, 6월1일까지), 이도초(2학년), 함덕고(3학년 5~6

반, 26일까지) 등 총 7개교다.

한림공고는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해 이날 전체 학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남광초(1~2학년), 오라초(4~6학년), 노형중(1학년), 서귀포대신중(2학년)은 부분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문고는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마친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위한 선제적 코로나19 검사에 따라 26일까지 보건간호과 2·3학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된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중인 학생은 18명, 교직원은 1명이다. 이날 자가 격리 외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은 1023명으로 집계됐으며, 등교 후 의심증상 등으로 귀가조치된 학생은 45명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펜션 여성 투숙객 사망 경찰, 40대 살인혐의 입건

속보=서귀포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과 함께 투숙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43)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8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된 B(40·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역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후 25일 이뤄진 B씨의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승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미세먼지에 뒤덮인 신제주 미세먼지 매우나뭇을 보인 25일 제주국제공항 너머로 신제주 시가지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너 뭐야"... 경찰에 흥기 휘두른 20대 실형

출동한 경찰관에게 흥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 출입문 주변에서 흥기를 들고 배회한 것 때문에 출동한 경찰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신원확인 요구에 "너네 뭐야"

라며 주방에 있던 흥기로 경찰관의 목을 찌른 것이다. 해당 경찰관은 다쳤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만 입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21일 열린 1심(제주지법 제2형사부)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승은범기자

카카오톡으로 잔여 백신 확인

카카오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27일 오후 1시부터 카카오톡에서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카카오톡 #탭의 '잔여백신' 탭에서 잔여 백신이 있는 인근 위탁의료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바로 예약할 수 있다. 잔여 백신을 보유한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카카오맵과 연동돼 지도 형태로 노출돼 한눈에 기관의 위치와 상호, 백신 잔여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 목록을 잔여 백신 수량순이나 거리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도 있다. 문미숙기자

"2학기 전면 등교, 밀집도 완화가 관건"

전교조 제주지부 성명

전교조 제주지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해야하는데 적극 동의한다"면서 "안전한 등교를 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최선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 중 하나는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과대 학교 해결도 시급하다"면서 "학생 1000명이 넘는 학교가 21개교이며,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에 몰려있다. 과대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설 학교에 대한 지원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 교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신속하게 빠르게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30세 이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170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삼다수 계약 대기업 횡포"

대기업 하청을 받아 제주 삼다수를 도외로 운송하고 있는 도내 선박업체들이 '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를 당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연안해운화물협회장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개발공사)와 삼다수 도외물류운영계약을 맺은 대기업은 그동안 도내 업체와 원가도 되지 않는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을 주는 등 불합리한 계약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승은범기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그랜드 보청기

그랜드보청기확장이전파격할인!!
구매고객20만원상당녹음선착순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검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청사거리
제주시청사거리
제주시청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제주역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